

[ 사회 ]

# 전국체전에 윈 철제 금고?

## 각 시·도 체육회 자체 방법으로 가져와 체전 줌독극성...광주경찰청 특별방범



‘제88회 광주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체육회가 무게 100kg가량의 철제 금고를 현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각 체육회 측은 매일 400만~1천만원의 현금을 은행에서 인출, 금고에 보관한 후 선수단 격려금과 운영비 등을 지출할 예정이다.

시·도체육회의 이런 ‘방법 작전’은 체전 때마다 줌독들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 지난 1993년 10월 광주에서 개최된 제74회 전국체전 때 도 동구 G호텔에 투숙했던 부산 측 구협회 박모씨가 220만원을 털었다. 또 서구 N여관 객실 3개가 한꺼

번에 털려 전북 사격선수단이 89만원을 도난당했다. 당시 숙박업소 측은 “타지 손님들이 잃어버린 돈이니 돌려주겠다”며 피해를 모두 보상해줬지만,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구길 수밖에 없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런 사정을 감안, 폐막식인 오는 14일까지를 ‘체전 특별방범기간’으로 정하고 강력계 형사·지구대 경찰 등 총 1천600여 명을 투입, 방범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서별로 강력팀 2개 반(12~16명)을 비롯 ▲지구대 경찰 957명 ▲방범순찰대원 4개 중대(400여 명) ▲자율방범대 100여 명

을 선수단 및 임원 숙소 주변에 배치한다. 광주청은 앞서 시내 숙박업소 934곳의 CCTV 등 방범시설을 점검했다.

경찰은 또 형사기동대 5개반(30여 명)을 동원, 시내 기동 순찰을 펼치며, 낱치기에 대비해 도난 오토바이 일제 단속과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전 기간에 3만여 명이 광주를 찾는데 이곳 사정에 어두운 손님들을 노린 낱치기·절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경기장·숙소 주변의 방범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기자 kroh@kwangju.co.kr

### 흐린 한글날 10월 9일

태풍에서 약화된 저기압의 영향받아 흐리겠다.

광주	흐림	12~22℃
전남	흐리고 비	15~20℃
전북	흐리고 비	18~21℃
충남	흐리고 비	14~21℃
충북	흐림	12~21℃
경남	흐리고 비	13~21℃
경북	흐리고 비	13~21℃
충청	흐리고 비	17~22℃
강원	흐림	11~22℃
제주	흐리고 비	14~21℃
서울	흐리고 비	13~21℃
인천	흐림	11~22℃
대전	흐리고 비	13~21℃
대구	구름 많음	11~23℃
부산	구름 많음	11~23℃
울릉도	흐리고 비	11~23℃
독도	흐리고 비	15~18℃

서울대부분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2.0~4.0m  
 전남대부분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2.0~4.0m  
 전북대부분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2.0~4.0m  
 부산대부분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 00:57 썰물 < 06:13  
 여수 밀물 < 08:07 썰물 < 01:58

▲해돋이 06:33 ▲해질 18:06 ▲달돋이 04:32 ▲달질 17:02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0(수)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6/24	14/23	13/22	11/22	11/21	10/21

## 초·중·고 수질 부적합 정수기 급증

2분기 420대...1분기 비해 74% 늘어

초·중·고교에 설치돼 있는 정수기(병운수기 포함) 7만1천810대 중 전남 21대를 비롯한 420대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이경숙(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8일 공개한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는 전체의 82.1%인 9천528곳이며 이들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는 7만1천973대로 1곳당 7.6대가 사용되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2·4분기 학교 정수기 7만1천810대에 대해 수질을 검사한 결과 이중 0.6%인 420대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질 부적합 정수기는 서울이 129

대로 가장 많았다. 시도별 부적합 정수기는 ▲충북 48대 ▲충남 46대 ▲경기 43대 ▲대전 41대 ▲경남 30대 ▲전남 21대 ▲전북 19대 순이다.

수질 부적합 정수기 수는 지난 1·4분기 수질 검사 당시 부적합 정수기가 모두 242대였는데 비해 74% 가량 급증했으며 부적합 판정 비율은 1·4분기 0.3%에서 2·4분기 0.6%로 높아졌다.

전남을 비롯한 서울·부산·대구·대전·강원·경남 등은 부적합 정수기 비율이 증가세를 보였다. 경북과 제주 지역은 부적합 정수기가 한대도 없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우다방’ 우표 전시회 ‘제 4회 충장로 축제 우표 전시회’가 오는 13일까지 광주우체국 ‘우다방’에서 열린다. ‘빛고를 광주 사랑’과 ‘추억의 7080’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사진으로 본 100년 광주그림첩사’ 등 14개 작품(41점)이 전시된다. /위경량기자 jrwi@kwangju.co.kr

## 안마업소 등 변종 성매매 기승

정부의 단속에도 안마업소나 사이버 성매매 형태로 성매매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 의원 명목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집합촌 형태의 성매매 업소는 2004년 1천696개에서 2007년 5월 현재 992개로 줄고 있는 반면 성매매로 연결되지 쉬운 안마시술소는 2005년 955곳에서 지난 6월 현재 1천11곳으로 늘었다.

변종종속업소도 같은 기간 5천841개에서 9천451개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남의 경우도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업소 등은 2005년 49개에서 이달 현재 71개로 늘었다.

또 정보통신위원회가 안 의원에 제출한 ‘인터넷 변종 성매매 심의 실적’도 2004년 2천556건에서 2007년 6월 현재 6천126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에 단속된 성매매 사범 수는 2003년 1만2천739명에서 2006년 3만4천795명으로 특별법 이후에도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시·도간 교원 교류 매년 1차레로 축소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전국체전이 열리는 광주에서 간담회를 열고 매년 2차례 시행해 오던 시·도간 교원 교류를 1차례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교원 복지 차원에서 매년 3월1일자와 9월1일자로 시·도간 교원 교류를 시행해 왔지만 학습권 보호와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3월1일자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1년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철뉴스

## 광주·전남 ‘관리 대상 조폭’ 1,542명

경찰, 전국 471개파 1만1천476명 상시 감시

검찰이 명단에 올려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른바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광주·전남지역 1천500여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검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내 폭력 조직은 모두 471개파로 산하 조직원은 모두 1만1천476명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지검 관할이 칠성과 등 101개파 1천8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검이 수원남문과 등 45개파 1천581명 ▲광주지검이 국제PJ과 등 33개파 1천542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전주지검이 16개 파 953명 ▲청주지검(청주시라소니과 등 6개 파 636명) ▲대전지검(신왕과과 등 26개 파 522명) 관할 지역도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으로 꼽혔다.

법무부는 지난 2003년 4월 러시아 마피아 조직 두목이 부산에서 반대와 조직원에게 피살되기도 했지만, 아직 국내에 조직 체계를 갖춘 국제 폭력조직은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국내 주요 폭력조직 현황

지역별(지검별)	조직명	조직원 수
부산지검	칠성과 등 101개파	1,833
수원지검	수원남문과 등 45개파	1,581
광주지검	국제PJ과 등 33개파	1,542
서울중앙지검	신원중 이글스과 등 81개파	1,193
대구지검	동성모과 등 43개파	1,064
전주지검	전주월드컵과 등 16개파	953

## 아버지 죽음도 모르고...

서예가 하남호씨 차남 타계 부친 발인날 숨져

호남의 대표적인 서예가 장전(長田) 하남호 선생이 4일 타계한 데 이어 투병 중이던 아들 영술(永述)씨마저도 고인을 뒤따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서양화가인 영술씨는 장전 선생의 발인 일인 7일 오전 9시계 지방인 신장염이 악화돼 입원중이던 전남대 병원에서 숨졌다. 향년 47세.

영술씨는 한 달 전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 부친의 영면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숙연케 하고 있다. 장전의 3남4녀 중 차남인 영술씨는 개인전을 여는 등 창작혼을 놓지 않았다. 빈소는 무등장제사장. 문의 062-515-4488. /윤경기자 penfoot@

10월 28일 공인중개사 합격

21일 파이널특강 3주 완성

출제유형별 핵심요약 및 실전대비 최종정리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7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971-0002 (빅마트 점 앞 광주은행 4F)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 전액국비수강생모집

#### 컴퓨터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영세지역일자	기업사무자동화 인력양성과정	3개월	11월 1일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0월 15일
	CAD	2개월	10월 22일
일반인	MOS(Master)	2개월	10월 15일
	정보통신실비	2개월	11월 1일
	정보처리	2개월	매월 초
정보화 기초1,2	5주	매월 초	

#### 부동산실무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2개월	11월 12일
	주래관리사	2개월	11월 12일

※ 교육대상 : ■영세지역일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일반인 및 대학생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6개월 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 야간반, 주말반)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점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세무공무원 1800여명 율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2회 추가 공채 예정 =

## 7급 공무원

강화직종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사직, 복지직, 토목직, 검출직, 물리화

◎최선을 다 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개강 : 10월 1일 주·야 (휴말)반 모집 (현재상당원수중)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222-4560

##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자세한 자료는 지리산한약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지리산한약방

## 10월 1일 대개강

전문대졸업(예정자), 4년제대학 2학년이상 마치고 누구나 원하는대학,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개설과목 : 영어, 수학, 상용,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약, TEPS

일반대 사범대 면접반

MEET/ DEET 기출문제반

약대, 한의대 면접반

TEPS 최단기 고득점반

김영면 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7-8088